

• 출애굽기 3:5

‘예배’에 담긴 원어적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절하다, 순복하다’(히, 티쉬타하바; 헬, 프로스큐네오)입니다. 영광과 권위를 지닌 존재에 대한 내적인 마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지하고 있는지가 내 언어와 행동에 그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사역, 봉사, 일’(히, 아바드)을 뜻합니다. 아담이 에덴동산을 경작한 것,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소에서 사역하고 제사드리는 것에도 ‘아바드’가 쓰였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헌신, 봉사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의미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히, 야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 말씀에도 순복하게 됩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로 최선을 다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영·혼·몸을 다해 최선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공예배든 삶의 예배든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든 시간과 장소가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시므로 우리가 선 모든 시간과 공간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일상, 봉사, 섬김, 사역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는 평신도 수도사로서 수도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에게 부엌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였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나의 사명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 봉사, 섬김은 일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일은 때로 버거운 짐과 의무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예배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 ① 공예배/사역/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 ② 모든 곳에서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